

“하늘이 만물 살리듯 살생 말고 방생해야”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 이야기



(44) 오훈채(五葷菜)의 금기(禁忌)

달마는 천일(天一) 지이(地二) 인삼(人三)의 이치를 설명했다. 일(一) 곧 '하나'는 하늘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고 무극(無極)의 진리를 표방한다고 했다.

'하나'는 가로로 그리면 일(一)이 되지만 둥글게 그리면 '원(○)'이 된다. '원'은 무시무종(無始無終) 곧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천부경>에서는 이것을 일시무시일(一始無始) 일종무종일(一終無終)이라고 했다. 이 '원'은 우주의 진공체(眞空體)를 말하는 동시에 하늘의 '형상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역(易)에서는 하늘의 수 하나(一)가 물을 낳는다(生水)고 했다. 이 하나(一)가 삼(三)으로 변해 천삼생목(天三生木)하는 것이 우주의 이치다. 하나가 셋으로 변하고 셋이 원주율(圓周率)을 이룬다. 이렇게 해서 우주의 창조와 변화가 일어난다. 흔히 선천(先天)의 변화원리를 수화기제(水火既濟)라고 일컫는다. 물은 수화기제는 수행자에게 있어서도 깨달음에 이르는 법칙이다. 숨기운을 사람 몸에 돌려 수승화강(水昇火降)이 이루어지면 진단(眞丹)이 결성(結成)되기 때문이다. 이 공부는 오로지 잡념을 쫓고 일심불이(一心不二)로 해야만 진경을 볼 수 있다.

精·氣·神 하나로 모으는 공부

달마는 삼(三)을 풀이하여 삼가(三家)라고 했다. 하나(一)의 본성(本性)은 셋(三)으로 나누어지니, 사람 몸으로 말하면 정·기·신(精·氣·神)을 일컫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사람 몸의 삼보(三寶) 곧 세 가지 보물이라고까지 지칭된다. 흔히 불교에서는 삼귀(三歸) 유교에서는 삼강(三綱) 그리고 도교에서는 삼정(三淨)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비록 법은 셋(三)으로 나누어지지만 실체는 하나(一)임을 세삼 보여 주고 있는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수행자는 반드시 정·기·신의 세 가지 진보(眞寶)를 한 곳에 모으는 공부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공부 없이는 삼화취정(三花聚頂)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더군다나 견성(見性)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 가지 공부는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일 따름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삼귀를 청정(淸淨)하게 해야 하며 삼명(三明)으로 더럽혀져 집중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달마는 다섯(五)을 풀이하여 오원(五元)이라고 했다. 사람 몸에선 심(心) 간(肝) 비(脾) 폐(肺) 신(腎)의 오장(五臟)이 오원이다. 불교에서는 다섯과 관련해서 오계(五戒)를 말하고 유교에서는 오상(五常) 그리고 도교에서는 오행(五行)을 내세운다. 따지고 보면 이 모두가 한 가지의 도(道)를 말하는 것이다.

역(易)에서는 오생토(五生土)라고 했다. 여기서 토(土)는 중앙(中央)이며 바탕이라는 뜻이다. 수행자가 바탕을 잡지 못하고 중앙의 중심을 잃게 되면 아무런 공효(功效)도 이룰 수 없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일규(一規) 곧 한 구멍을 열고 호흡을 가다듬게 되면 단약(丹藥)이 결성되고 선천(先天)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법이다. 이때의 숨고르기는 오장(五臟)의 정화(精化)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른바 오기조원(五氣朝元)이 연성(煉成)된다.

“수행자가 파를 먹으면 신장 곧 콩팥을 상하게 되고 수기(水氣)가 밖으로 빠져 나갈 염려가 크니라. 마늘은 심장을 상하게 하고 화기(火氣)를 인열(陰滅)시킬 것이니라. 부추를 먹으면 간장이 상하고 목기(木氣)가 모두 소산(消散)되니라. 달래는 비장을 상하게 하고 토기(土氣)를 내몰아 피곤하게 하여 고통을 주느니라. 또한 무릇은 폐장을 상하게 하고 금기(金氣)를 쫓아 내 흩어지게 하느니라.”

파·마늘·부추·달래·무릇

이 오기(五氣)로 상체를 입게 되면 결코 결단(結丹)을 이룰 수 없느니라. 수도하는 사람은 오훈채를 먹지 말라는 계율은 내기 스승 반아다라 존자에게 전수받은 정전(正傳)이니 반드시 지키도록 할지이다. 이와 더불어 오계를 엄하게 지켜야 하는

그대가 남을 죽이면 남 또한 그대를 죽이니 겁운이 그칠새 없도다

될 수 있는 것이다. 달마는 이 공부를 위해서는 반드시 오계를 지켜야 하며 참선자는 마땅히 오훈채(五葷菜)를 금기(禁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가는 스승의 청산유수 같은 설법에 다만 감격의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달마가 말을 마치기를 기다려 다시 한 번 배례(拜禮)하고 물었다.

“스승님, 오훈채를 금하셨는데 그 까닭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달마는 거침없이 대답했다.

“오훈채는 파, 마늘, 부추, 달래, 무릇 등 다섯 가지를 일컫는 것이니라. 이것들은 풀 가운데서도 장군(將軍)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뜻에서도 기미(氣味)가 흥함(興奮)할 것들이니라.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성질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수행자를 다치게 할 것이니 금하라는 것이다.”

달마는 해가에게 자애로운 눈길을 보내면서 설법을 이었다.

나라. 이렇게 해야 오기조원(五氣朝元)을 연성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지이다.”

해가가 스승에게 물었다.

“제자는 오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그 깊은 이치는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부디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달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설법을 시작했다.

“오계 가운데 첫번째로 살생을 금하는 까닭은 인덕(仁德)으로 근본을 삼기 때문이니라. 하늘이 만물을 살리는 덕을 본받아 살생을 하지 말고 방생(放生)을 해야 하느니라. 사람은 인회(仁會)에 동토(東土)에서 태어나 오래도록 곤궁에 파묻혀 살고 있느니라. 사람이 죽어 짐승이 되고 짐승이 죽어 사람이 되는 겹겹의 윤회(輪廻)를 거듭하고 있느니라. 이런 가운데 우매하게도 많은 짐승을 저질러 사람이 짐승을 먹고 짐승 또한 사람을 먹으니 이렇듯 비정(非情)할 수가 어디 있겠느냐. 사람은 도를 얻어 서천(西天)으로 돌아가서 마땅히 극락경계(極樂境界)에 초생(超生)



◁미형광림(尾形光琳, 1668~1716) 작 달마도(95.5×40.6cm, MOA미술관 소장).

“도독질을 하지 말라는 계율은 원래의 기(義)를 중요하게 여긴 데서 생긴 것이니라. 절대로 편견이나 각박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느니라. 비록 평등하다고 할 지라도 남자는 마음을 밖에서 두고 여자는 마음을 안에서 두어야 하느니라. 각자가 할 일을 다 하고 뒷일이 구하지 않으면 지인(志人) 측에 드느니라.”

남녀가 모두 단정(端正)을 철저히 배워야 하느니라. 망령되어 탐하지 말고 망령되어 취하지도 말고 오로지 청정결백(淸淨潔白)해야 하느니라. 한 포기 풀, 한 톨의 돈도 가지게 될 때는 까닭이 있으며 한 오리의 실, 한 발의 새끼줄에도 주인이 없을 수 없느니라. 물건을 살 때도 그렇거니와 물건을 팔 때도 공정(公正)을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하느니라. 사람에게 재물을 속이면 오래 가지 않을 뿐더러 죄값을 받게 되느니라. 그렇게 하여 남이 금과 은을 가득히 쌓아 놓았다고 해서 두려워 할 까닭이 없느니라. 재물은 그것이 몸 가까이 있든 눈앞에 있든 간에 조금도 마음이 동요해서는 안 되느니라. 혹시 취할 일이 있더라도 함부로 취하거나 속여서 취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망령되어 취한다면 의(義)를 손사끼쳐 성인(聖人)의 도(道)를 배반하는 것이 되느니라. 불문에 들어 대도(大道)를 닦고자 할진대 귀계(歸戒)하여 청정(淸淨)해야 하느니라. 이것을 어찌 거침없이 행하는 소인배의 행동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티끌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로 떠들썩하지만 어느 한 사람도 재물을 탐하지 않거나 금전을 움켜

재물 탐하지 않는 자 없으니

쥐지 않으려는 사람이 없구나. 눈을 감고 사람들 상등(上等) 중등(中等) 하등(下等)의 세 부류로 나뉘어 생각해 보니 대개 미망 속에 빠져 계산기만 두들길 뿐 지음(知音)의 인(人), 곧 부처님의 소리를 아는 사람은 없구나. 도독질하는 자만이 하늘의 양심을 잃었다고 말하지 말지이다. 비록 도독이 아니라 할지라도 돈을 탐하지 않는 자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지나치게 이(利)를 탐한다고 말하지 말지이다. 수행하는 사람도 돈을 보고 마음을 움직이고 있지 않겠는가. 재물을 뜻한 재(財)라는 글자는 혼백(魂魄)을 혼미케 하는 큰 구렁덩이 같은 것이니라. 이후로는 재물을 얽히 지켜 미혹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하느니라. 수행하는 사람은 한시도 쉬지 않고 공(功)을 닦아야 하니 털끝만치도 탐하지 말고 털끝만치도 물들지 말아야 할 법 아니라 나아가 참되게 본성(本性)을 함양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공성(功成)하게 되면 은뎨(銀錢)는 칠보(七寶)단장(壇場) 보신(寶身)으로 감싸 지니, 그 보물은 아무리 써도 다 쓰지 못하리라. 이것을 일컬어 공을 이루어 성의(聖義)를 입고 성반(聖飯)을 먹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이것은 곧 영득(永得)快樂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니라.”

해가는 스승 달마의 설법을 한 마디도 놓치지 않고 마음 속 깊이 새겨들었다. 그는 진짜 삼(三寶)과 ‘성(聖)’ 및 ‘성(聖)’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됨으로써 새로운 진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월간역학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되어 주역·풍수지리·사주명리·관상학과 유·불·선의 심오한 사상을 알기 쉽게 실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배포하는 국내 유일의 동양학 전문지로 99년 11월 1일 문화관광부 장관관공을 수상한 출판 잡지입니다.

2001년 1월호에는 풍수지리의 기원과 역사, 본질을 밝히는 「풍수지리란 무엇인가」를, 2월호에는 주역을 활용한 「역점64」를, 3월호에는 「월간사주」와 「법문공」, 「사찰과 조선의 왕릉 풍수지리」를, 4월호에는 「불교란 무엇인가」를, 5월호에는 「음양의 산수이장법」을, 6월호에는 「조선의 무적」을, 7월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의 풍수지리 해설」을, 8월에는 「중국 민간에 전해지는 최후비결」을 특집으로 실었습니다.

2001

누가 풍수지리를,

이젠 당신이 관룡자로 직접 명당을 찾으세요.

관룡자란? 심층적인 이름으로도 불리며, 이미 2천여년 전부터 중국의 황실에서 궁궐터를 잡거나 황제의 묘터를 잡을 때,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명당 사용되며 명나라 말까지 전수되어 오던 명당지이다. 그러나 명나라 이후 그 비결이 단절되어 계승되지 않았으나, 「월간역학」을 발행하는 한국의 진산실업(주)에서 장기간의 연구 끝에 복원에 성공하여 77만원에 공급하고 있다.

어떻게 사용하나?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사찰 등 건물의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터를 감정할 때, 또는 산소나 납골당, 가족 납골당의 터를 잡거나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관룡자를 사용하면 명당에서만 발생하는 특별한 지기(地氣)에 반응하여 지기가 흐르는 명당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터를 잡는 것은 물론 건물이나 산소의 방향(좌향)까지 잡을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교수, 사업가, 전문 경영인, 법률가, 종교인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실험 후 경탄을 금치 못했으며, 이미 국내의 저명인사 200여명이 활용중인 제품이다.

명당이란? 명당의 현대적 개념은 더욱과 같이 추경된다. 지구는 남극과 북극이 자장(magnetic field)을 띠며 지대한 자력으로 23.5° 기울어진 상태로 끊임없이 자전과 공전을 하며 음(-) 양(+)의 전하(electric charge)가 발생된다. 음 양의 전하가 균형을 이루어 음양이 조화된 땅으로 특별한 지기인 생기가 발생되는 것이 명당이다. -월간역학 1월호 중에서 부분만-

관룡자의 원리 관룡자는 -전하나 +전하중 한 기운만 작용하는 곳에서는 평형을 유지하지만 음양이 고르게 조화를 이룬 곳(명당)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지기에 의해 옆으로 회전하도록 합금된 센서를 장착하고 있다. 또한 관룡자는 수맥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반드시 명당 열에서만 작동하므로 믿을 수 있다. 오랜동안 변성해온 사찰의 대웅전, 성당, 명당으로 알려진 변성한 가문의 유령한 묘지에서는 관룡자가 틀림없이 작동되는 현상이 이것을 입증한다.

구입방법 한빛은행 064-301374-13-001 진산실업(주)로 77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자세한 사용 설명서와 함께 즉시 택배로 안전하고 빠르게 보내드립니다. 구입가격은 「월간역학」 1년간 무료 기증. (신용카드 24개월 분할 가능)

● 월간역학 1년 정기 구독료는 9만원이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7만5천원으로 할인+수맥탐지봉 1세트 무료 증정.
● 월간역학은 저번호도 모두 정가 판매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99년 1월호~2000년 12월호'까지 과월호 24권을 선착순 220분에 한하여 10만원에 드립니다.

진산실업(주) (02)2264-0258 운세정보 800-8112. 주역점, 2001년 토정비결, 궁합, 꿈풀이 등 다양하고 정확한 내용. (한국생태과학) 서울시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철물빌딩 101호